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s

한 상 우 (Sang Woo Han)*

김 완 종 (Wan Jong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분석 및 가설 검증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능력인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의사소통역량 중 수용력은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소통역량 중 전달력은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통합,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역량 중 조정력은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 등 정보활용능력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s. The research results were found as follows: First of all, receptive compet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retrieval and information evaluation. Secondly, transmission compet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integration and information representation. Finally, adjustment compete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information literacy, that is,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retrieval, information assessment, information integration,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information ethics. Therefore, we can understand communicative competence has a closed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literacy.

키워드: 의사소통역량, 정보활용능력, 정보문해, 정보교육

Communicative Competence,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anggu@gmail.com)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서비스실 선임연구원(wjkim@kisti.re.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1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377-394,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377]

1. 서론

인류 역사의 발전은 곧 정보활동의 역사이다. 개인 혹은 집단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습득하였고,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고 전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의 정보활동은 주로 웹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계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활용능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보활용능력은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인식한 후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획득한 정보를 비판적 사고로 분석·평가를 내린 후 윤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혜영 2008).

한편, 인간 사회는 의사소통 없이 존립할 수 없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지식과 사회적 의식 등 한 사회가 운용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습득된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될수록 의사소통 능력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것이다(한상우, 김종규, 원만희 2015). 즉 현대인은 주변 환경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대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일정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석재 외 2003, 33).

즉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정보활동은 필수적이며, 정보활동은 타인 및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역량과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위한 정보활용능력은 그 개념상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정보활용능력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분석,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 혹은 정보활용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이정연, 최은주 2006; 이혜영 2008; 김성원 2011). 한편, 의사소통역량 관련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거나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진미석, 손유미, 주희정 2011; 김종규, 한상우, 원만희 2015; 이석재 외 2003). 하지만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개념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정보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축적되며, 특정 정보는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수용되고 전달되고 조정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의사소통역량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 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의사소통이란 사회적 협력 과정 속에서 생각을 표현, 교환, 이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의사소통역량은 개인이 접하는 주변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의사소통역량은 대체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네 가지 영역과 토론 및 조정 능력을 추가한 역량으로 구성된다(김종규, 한상우, 원만희 2015, 392;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466-467; 허경호 2003, 380).

이와 같은 의사소통역량은 특히 다양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의사소통의 과정이므로 교육 과정이

고도화될수록 의사소통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김종규, 한상우, 원만희 2015), 이에 따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에서 의사소통역량을 핵심역량으로 간주하고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들 수 있다. K-CESA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활용능력, 종합적사고력, 글로벌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이 중 의사소통역량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역량으로 여타 역량의 토대로 볼 수 있다.

2.2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¹⁾이란 “정보원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총체로써 정보 자료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문제해결 활동”, “정보자료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창조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의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탐색, 종합,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1) Information literacy는 국내에서 여러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광범위하고 적합한 용어는 ‘정보문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문해는 정보교육의 일반적 구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활용 방법, 정보기술 활용능력 등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 방법론적 능력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적 능력까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정보문해는 읽기, 쓰기 등의 전통적인 문해와 컴퓨터 문해, 미디어 문해 등 모든 문해의 공유 부분이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고영만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역량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문해가 갖는 다양한 의미 중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제외하고 정보의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는 의미로 ‘정보활용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Breivik 1989; AASL, AECT 1998; NCREL 2003).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된 정보활용능력은 자신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이병기 2012, 19).

이처럼 정보활용능력은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정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갖추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활용 능력이 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검색 시스템을 통한 정보검색과 웹상의 정보를 검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무분별하게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정보의 검색과 이용에 관련된 정보활용능력은 변화된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볼 수 있다(이혜영 2008).

2.3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환경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검색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

요가 있는 것이다(이혜영 2008).

즉, 사회의 발전과 분화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보와 결합되어 정보화사회에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과 정보활용능력을 핵심적인 역량으로 언급하고 있다(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2015). 아울러 정보활용능력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구성주의는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습득 및 축적이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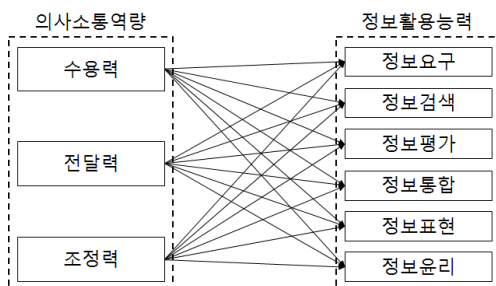
이처럼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그 배경 및 개념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개념을 포괄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력, 반성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개념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져 왔으며(장선영 2014;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2011; 백평구 2013), 정보활용능력 역시 자기효능감, 정보이용행태, 학업성취도 등과의 연관성 및 정보활용능력 측정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최은주, 박남진 2005; 김성원 2011; 이병기 2013). 하지만 개념적으로 가장 밀접해 보이는 의사소통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개념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타인 및 주변 상황과의 의사소통은 필연적으로 발

생한다. 또한 개인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불명확한 요구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인의 의사소통역량은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수용력은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전달력은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조정력은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보의 소재 파악 및 필요한 도구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검색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수용력은 정보검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전달력은 정보검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조정력은 정보검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검색한 결과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또한 새로 습득한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와 비교하고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평가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1〉 수용력은 정보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전달력은 정보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조정력은 정보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 습득한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문제의 해결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 정리, 전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이 정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통합의 영향 관계에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1〉 수용력은 정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2〉 전달력은 정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3〉 조정력은 정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집·통합·정리된 정보는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은 정보표현과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

였다.

- 〈가설 5-1〉 수용력은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2〉 전달력은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3〉 조정력은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원칙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보다 강한 윤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역량은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6-1〉 수용력은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2〉 전달력은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3〉 조정력은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의사소통역량을, 종속변인으로는 정보활용능력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의사소통역량의 측정 변인은 김종규, 한상우, 원만희(2015)의 연구에서 개발한 “개선된 의사

〈표 1〉 변인 설정 및 조작적 정의

개념	측정변인	조작적 정의
의사소통역량	수용력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타인 및 주변 환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역량의 정도
	전달력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역량의 정도
	조정력	수용력과 전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대상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역량의 정도
정보활용능력	정보요구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전략 수립과 이용 가능한 정보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개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정보검색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최적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정보평가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집한 정보 및 정보원의 유용성에 대한 판단 및 기존의 정보와 비교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정보통합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집한 정보와 기존의 정보를 결합하고 새로운 형태로 조직·정리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정보표현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적합한 매체 및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의 정도
	정보윤리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의 정도

소통역량 자기진단 모형”의 진단 문항을 원용하였다. 이는 동 모형의 개발을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신뢰성,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객관성을 인정 받은 모형이므로 본 연구에서 원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력, 전달력, 조정력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항목은 수용력 9문항, 전달력 9문항, 조정력 7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활용능력의 측정 변인은 이혜영(2008)의 연구에서 개발된 ‘정보활용능력 척도’의 핵심영역 및 측정 문항을 원용하였다. 의사소통역량 진단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 모형 역시 정보활용능력 척도의 개발을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목에 대하여 신

뢰성, 타당성 검증 및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원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는 6개 변인의 측정 항목은 정보요구 5문항, 정보검색 9문항, 정보평가 9문항, 정보통합 6문항, 정보표현 3문항, 정보윤리 7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3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는 서울 소재 두 곳의 대학교에서 개설한 학부과정의 일반 교양과목 중 임의로 3개 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이는 정보활용교육이나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무관하게 대학생의 일반

적인 현상을 측정해 보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Google drive를 이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자는 수업시간 중에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제공받은 설문 URL로 접근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110명의 대학생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6명의 설문을 제외한 104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SPSS21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및 가설 검증

4.1 설문의 기초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이며 성비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학년 및 수강과목 등은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전공, 성별, 학년, 관련 교과목 수강 등의 요인을 제한하여 의사소통역량 및 정보활용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의사소통 혹은 정보활용능력 관련 교과목을 수

강하는 학생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구통계적 정보를 포함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의사소통역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력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달력에 있어서는 글을 쓰기 전에 전체의 틀을 구성하는 점을, 조정력에 있어서는 토론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점 파악 및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소양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다만, 전달력에 있어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말하거나 글의 목적에 맞추어 글의 길이를 정하는 점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 볼

<표 2> 설문대상자의 기초통계

항목	구분	표본수	비율(%)
성별	남	55	52.9
	여	49	47.1
학년	1학년	23	22.1
	2학년	17	16.3
	3학년	15	14.4
	4학년	49	47.1
계		104	100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활용능력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용한 정보자원의 활용, 필요한 정보의 검색, 필요한 정보의 핵심 파악, 기존 축적한 정보와의 통합, 발표를 위한 정보의 작성, 표절에 대한 이해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양질의 정보 획득을 위한 타인과의 협력, 정보시스템별로

특화되어 있는 고급검색기법, 다양한 정보도구(시소러스, 주제명표목표 등)의 활용, 인용법에 대한 이해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3〉, 〈표 4〉 참조).

〈표 3〉 의사소통역량 빈도분석 결과

진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수용력	RC1	4.17	.660	-	-	15(14.4)	56(53.8)	33(31.7)
	RC2	3.41	.820	-	13(12.5)	44(42.3)	38(36.5)	9(8.7)
	RC3	3.93	.792	-	4(3.8)	24(23.1)	51(49.0)	25(24.0)
	RC4	3.69	.904	1(1.0)	6(5.8)	39(37.5)	36(34.6)	22(21.2)
	RC5	3.82	.798	-	6(5.8)	26(25.0)	53(51.0)	19(18.3)
	RC6	3.85	.868	-	9(8.7)	21(20.2)	51(49.0)	23(22.1)
	RC7	3.91	.837	-	7(6.7)	20(19.2)	52(50.0)	25(24.0)
	RC8	3.76	.842	-	5(4.8)	37(35.6)	40(38.5)	22(21.2)
	RC9	3.28	.950	1(1.0)	18(17.3)	51(49.0)	19(18.3)	15(14.4)
전달력	TC1	3.66	.866	1(1.0)	6(5.8)	38(36.5)	41(39.4)	18(17.3)
	TC2	3.50	.824	1(1.0)	10(9.6)	38(36.5)	46(44.2)	9(8.7)
	TC3	3.49	1.052	2(1.9)	19(18.3)	28(26.9)	36(34.6)	19(18.3)
	TC4	3.73	.827	-	8(7.7)	29(27.9)	50(48.1)	17(16.3)
	TC5	3.76	1.047	2(1.9)	13(12.5)	21(20.2)	40(38.5)	28(26.9)
	TC6	3.63	.871	1(1.0)	9(8.7)	32(30.8)	47(45.2)	15(14.4)
	TC7	3.21	1.002	3(2.9)	25(24.0)	32(30.8)	35(33.7)	9(8.7)
	TC8	3.63	.803	-	8(7.7)	36(34.6)	47(45.2)	13(12.5)
	TC9	3.83	.999	2(1.9)	11(10.6)	17(16.3)	47(45.2)	27(26.0)
조정력	AC1	3.78	.836	-	7(6.7)	29(27.9)	48(46.2)	20(19.2)
	AC2	3.69	.925	2(1.9)	10(9.6)	23(22.1)	52(50.0)	17(16.3)
	AC3	4.03	.806	1(1.0)	2(1.9)	20(19.2)	51(49.0)	30(28.8)
	AC4	3.70	.902	-	9(8.7)	35(33.7)	38(36.5)	22(21.2)
	AC5	3.75	.845	1(1.0)	6(5.8)	29(27.9)	50(48.1)	18(17.3)
	AC6	3.68	.917	2(1.9)	7(6.7)	32(30.8)	44(42.3)	19(18.3)
	AC7	3.68	.862	-	8(7.7)	36(34.6)	41(39.4)	19(18.3)

RC(Receptive Competence), TC(Transmission Competence), AC(Adjustment Competence)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표 4〉 정보활용능력 빈도분석 결과

진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정보요구	IN1	3.76	.782	1(1.0)	3(2.9)	32(30.8)	52(50.0)	16(15.4)
	IN2	3.20	1.161	10(9.6)	16(15.4)	36(34.6)	27(26.0)	15(14.4)
	IN3	3.89	1.004	2(1.9)	9(8.7)	19(18.3)	42(40.4)	32(30.8)
	IN4	4.13	.751	-	2(1.9)	17(16.3)	50(48.1)	35(33.7)
	IN5	3.69	.925	1(1.0)	8(7.7)	35(33.7)	38(36.5)	22(21.2)
정보검색	IR1	3.44	.943	1(1.0)	15(14.4)	40(38.5)	33(31.7)	15(14.4)
	IR2	3.86	.852	-	4(3.8)	34(32.7)	39(37.5)	27(26.0)
	IR3	3.63	.946	1(1.0)	11(10.6)	33(31.7)	39(37.5)	20(19.2)
	IR4	4.03	.841	-	5(4.8)	20(19.2)	46(44.2)	33(31.7)
	IR5	3.47	.985	2(1.9)	13(12.5)	41(39.4)	30(28.8)	18(17.3)
	IR6	2.92	1.212	12(11.5)	32(30.8)	24(23.1)	24(23.1)	12(11.5)
	IR7	2.88	1.112	6(5.8)	43(41.3)	23(22.1)	22(21.2)	10(9.6)
	IR8	3.56	.879	1(1.0)	11(10.6)	34(32.7)	45(43.3)	13(12.5)
	IR9	3.07	1.073	8(7.7)	24(23.1)	33(31.7)	31(29.8)	8(7.7)
정보평가	IA1	3.86	.806	-	5(4.8)	27(26.0)	50(48.1)	22(21.2)
	IA2	3.62	.906	1(1.0)	9(8.7)	37(35.6)	39(37.5)	18(17.3)
	IA3	3.59	.888	-	12(11.5)	35(33.7)	41(39.4)	16(15.4)
	IA4	3.69	.801	-	6(5.8)	36(34.6)	46(44.2)	16(15.4)
	IA5	3.28	1.186	8(7.7)	22(21.2)	23(22.1)	35(33.7)	16(15.4)
	IA6	3.81	.904	-	9(8.7)	27(26.0)	43(41.3)	25(24.0)
	IA7	3.87	.789	-	4(3.8)	28(26.9)	50(48.1)	22(21.2)
	IA8	3.73	.815	-	6(5.8)	34(32.7)	46(44.2)	18(17.3)
	IA9	3.79	.797	-	5(4.8)	31(29.8)	49(47.1)	19(18.3)
정보통합	II1	3.62	1.036	3(2.9)	12(11.5)	29(27.9)	38(36.5)	22(21.2)
	II2	3.29	1.188	7(6.7)	22(21.2)	28(26.9)	28(26.9)	19(18.3)
	II3	3.77	.803	-	7(6.7)	27(26.0)	53(51.0)	17(16.3)
	II4	3.76	.876	-	9(8.7)	28(26.9)	46(44.2)	21(20.2)
	II5	3.65	.845	1(1.0)	6(5.8)	37(35.6)	44(42.3)	16(15.4)
	II6	3.80	.863	1(1.0)	7(6.7)	24(23.1)	52(50.0)	20(19.2)
정보표현	IRe1	3.76	1.010	2(1.9)	9(8.7)	29(27.9)	36(34.6)	28(26.9)
	IRe2	3.88	.840	1(1.0)	4(3.8)	25(24.0)	50(48.1)	24(23.1)
	IRe3	3.93	.851	1(1.0)	2(1.9)	29(27.9)	43(41.3)	29(27.9)
정보윤리	IE1	3.91	.915	-	7(6.7)	27(26.0)	38(36.5)	32(30.8)
	IE2	3.96	.944	2(1.9)	4(3.8)	24(23.1)	40(38.5)	34(32.7)
	IE3	3.88	.900	1(1.0)	5(4.8)	28(26.9)	42(40.4)	28(26.9)
	IE4	3.38	1.007	4(3.8)	14(13.5)	39(37.5)	33(31.7)	14(13.5)
	IE5	3.92	1.002	3(2.9)	4(3.8)	26(25.0)	36(34.6)	35(33.7)
	IE6	3.43	1.003	1(1.0)	20(19.2)	32(30.8)	35(33.7)	16(15.4)
	IE7	3.81	1.053	3(2.9)	7(6.7)	30(28.8)	31(29.8)	33(31.7)

IN(Information Needs), IR(Information Retrieval), IA(Information Assessment), II(Information Integration), IRe(Information Representation), IE(Information Ethics)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4.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 변인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각 변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별도의 타당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도 조사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신뢰성 평가시 Cronbach's α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으며, 0.6 이상이면 문항들 간의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변인의 설문 항목들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 모형의 영향 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식에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는 독립변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후진제거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4.3.1 의사소통역량과 정보요구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요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설문 항목의 신뢰성 분석

개념	측정변인	문항 수	Cronbach's α
의사소통역량	수용력	9	.858
	전달력	9	.843
	조정력	7	.793
정보활용능력	정보요구	5	.731
	정보검색	9	.864
	정보평가	9	.907
	정보통합	6	.810
	정보표현	3	.812
	정보윤리	7	.828

〈표 6〉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994	.383		2.598	.011	17.974	.000	.350
	수용력	.213	.141	.186	1.513	.133			
	전달력	.077	.138	.073	.557	.579			
	조정력	.443	.128	.396	3.456	.001			
2	(상수)	1.001	.381		2.626	.010	26.990	.000	.348
	수용력	.255	.118	.223	2.154	.034			
	조정력	.473	.116	.423	4.086	.000			

의사소통역량과 정보요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용력과 조정력은 정보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달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력이 정보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223이고 조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423으로 조정력이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과 <가설 1-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4.3.2 의사소통역량과 정보검색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검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과 정보검색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용력과 조정력은 정보검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달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력이 정보검색에 미치는 영향력은 .277이고 조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360으로 조정력이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1>과 <가설 2-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4.3.3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평가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검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82	.409		1.423	.158	16.581	.000	.332
	수용력	.332	.150	.276	2.213	.029			
	전달력	.002	.148	.002	.013	.989			
	조정력	.423	.137	.359	3.088	.003			
2	(상수)	.582	.407		1.432	.155	25.120	.000	.332
	수용력	.333	.126	.277	2.643	.010			
	조정력	.424	.124	.360	3.430	.001			

<표 8>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평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16	.357		1.164	.247	29.361	.000	.468
	수용력	.258	.131	.219	1.965	.052			
	전달력	.182	.129	.168	1.412	.161			
	조정력	.439	.120	.381	3.673	.000			
2	(상수)	.432	.359		1.204	.231	42.625	.000	.458
	수용력	.357	.111	.303	3.209	.002			
	조정력	.510	.109	.443	4.686	.000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평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수용력과 조정력은 정보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달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력이 정보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303이고 조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443으로 조정력이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1>과 <가설 3-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4.3.4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통합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통합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달력과 조정력은 정보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용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력이 정보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352고 조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344로 전달력이 근소하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4-2>와 <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4.3.5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표현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9>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통합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95	.377		1.578	.118	23.782	.000	.416
	수용력	.161	.139	.136	1.164	.247			
	전달력	.301	.136	.275	2.208	.030			
	조정력	.362	.126	.311	2.863	.005			
2	(상수)	.753	.353		2.132	.035	34.872	.000	.408
	전달력	.386	.115	.352	3.349	.001			
	조정력	.400	.122	.344	3.267	.001			

<표 10>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표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665	.455		1.462	.147	17.550	.000	.345
	수용력	.215	.167	.159	1.287	.201			
	전달력	.272	.164	.218	1.652	.102			
	조정력	.374	.152	.283	2.454	.016			
2	(상수)	.875	.426		2.053	.043	25.331	.000	.334
	전달력	.385	.139	.309	2.766	.007			
	조정력	.424	.148	.321	2.873	.005			

〈표 11〉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F	p	R ²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540	.436		3.534	.001	10.529	.000	.240
	수용력	-.042	.160	-.035	-.266	.791			
	전달력	.208	.157	.188	1.321	.189			
	조정력	.432	.146	.368	2.964	.004			
2	(상수)	1.498	.405		3.700	.000	15.904	.000	.240
	수용력	.186	.132	.167	1.403	.164			
	조정력	.422	.140	.359	3.011	.003			
3	(상수)	1.660	.390		4.255	.000	29.558	.000	.225
	조정력	.557	.103	.474	5.437	.000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표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달력과 조정력은 정보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용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력이 정보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은 .309이고 조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321로 조정력이 다소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5-2〉와 〈가설 5-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5-1〉은 기각되었다.

4.3.6 의사소통역량과 정보윤리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의사소통역량과 정보윤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정력은 정보윤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용력과 전달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력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4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6-3〉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6-1〉과 〈가설 6-2〉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능력인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사소통역량 중 수용력은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최적의 정보를 찾아내며, 찾아낸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에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력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요구, 검색,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역량 중 전달력은 정보활용능

력 중 정보통합,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수집한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고 새로이 조직하여 타인에게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명확하게 알리는 전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원활히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표현·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역량 중 조정력은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 등 정보활용능력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조정력은 수용력과 전달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으로서 조정력이 정보활용능력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은 곧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으로서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정보활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그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각기 연구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양 개념이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정보환경 속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효율적인 활용 및 표현이 요구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빈도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활용능력에 있어 양질의 정보 획득을 위한 타인과의 협력, 정보시스템별로 특화되어 있는 고급검색기법, 다양한 정보도구(시소러스, 주제명표목표 등)의 활용, 인용법에 대한 이해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에서 대학생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인지 교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교과목의 운영에서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보교육의 측면에서도 주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의 2개 대학의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이 갖는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의 현황을 측정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대학생의 전공별, 관련 교과목의 수강 여부 등 다양

한 조건에서 수행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 근거하여 의사소통 역량과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의 연구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영만. 2010. 『정보문해론』.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 김성원. 2011.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 상관관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8(3): 31-46.
- [3] 김종규, 한상우, 원만희. 2015.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 개발. 『수사학』, 23: 389-422.
- [4]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 [5]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4): 319-337.
- [6] 이병기. 2012. 『정보활용교육론』. 개정판. 서울: 조은글터.
- [7] 이병기. 2013. 길포드의 지능구조모형에 의한 정보활용능력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181-200.
- [8] 이석재 외.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RR 2003-15-3.
- [9]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 [10] 이혜영. 2008.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척도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1] 장선영. 2014. 프로젝트 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비판적 사고력, 정보활용능력이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26(3): 391-407.
- [12]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 [13] 최은주, 박남진.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153-172.
- [14] 한상우, 김종규, 원만희. 201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사학』, 24: 337-358.

- [15]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6): 380-408.
- [16] Chu, H. 2010.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Retrieval in the Digital Age*. 장혜란 옮김. 2011. 『디지털 시대의 정보 표현과 검색』.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7]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 and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1998. *Information Power: Building Partnership for Learning*.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18] Breivik, P. S. 1989. *Information Literacy*. New York: Macmillan.
- [19] Lemke, Cheryl. 2003. *enGauge 21st Century Skills: Literacy in the Digital Age*. Naperville, Illinois: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online] [cited 2016. 1. 7.] <<http://files.eric.ed.gov/fulltext/ED463753.pdf>>
- [20] 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2015.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online] [cited 2016. 1. 7.] <<http://www.p21.org/about-us/p21-framework>>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 Young-Man. 2010. *Information Literacy*.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2] Kim, Sungwon.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on the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31-46.
- [3] Kim, Jonggyu, Han, Sangwoo and Won, Manhee. 2015. "Invention of the Self-Appraisal Model for Assessing Communicative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Rhetoric*, 23: 389-422.
- [4] Baek, Pyoung-Gu.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 [5] Yu, Hyun Sook, Ko, Jang Wan and Lim, Hu Nam, 2011. "Examining Learning Experiences Influencing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High-order Thinking Skil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319-337.
- [6] Lee, Byeong-Ki. 2012.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2nd ed. Seoul: Joeungeulteo.
- [7] Lee, Byeong-Ki.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formation Literacy Test by Guilford's Structure of Intellect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181-200.

- [8] Lee, Suk-Jae et al. 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 2003-15-3.
- [9] Lee, Jung-Yeoun and Choi, Eun-Ju. 2006.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for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1): 315-334.
- [10] Rhee, Hey-young. 2008. *The Study 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Literacy Scales for Undergraduates*.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Korea.
- [11] Jang, Seon-young. 2014. "The Effects of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ICT-Literacy on the Learner's Reflective Thinking in the Project-Based Learning Environ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3): 391-407.
- [12] Jin, Misug, Sohn, Yumi and Chu, Huijung.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461-486.
- [13] Choi, Eun-Ju and Park, Nam-Jin. 2005.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4): 153-172.
- [14] Han, Sangwoo, Kim, Jonggyu and Won, Manhee. 2015.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Rhetoric*, 24: 337-358.
- [15] Hur, Gyeong-Ho.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16] Chu, H. 2010.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Retrieval in the Digital Age*. Translated by Chang, Hye-Rhan. 2011. 2n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